



남북 당국간 경색분위기도 불구하고 남북불교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에 의해 복원된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위)과 천태종이 복원을 지원하고 있는 개성 영통사(가운데), 한국제이티에스의 용전역참사 지원(아래).

# “대북교류 역량 결집할때”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불사가 마무리되면서 남북불교교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류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불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결집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2월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불교관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교류단체간 상호 협력의

이처럼 종단과 단체들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불교계의 대북교류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종단의 참여 속에 1997년 창립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벌이면서 1999년 통일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북교류 장구로 승인을 받았다. 또 2002년 4월 남북교류 사업의 창구를 종단협으로 단일화하면서 남북불교계는 상호 협조의 고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는 조계종 등의

이웃 종교의 대북사업은 불교계와는 달리 보다 단일화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톨릭은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교단과 소속 단체들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며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개신교 역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남북한선교동일위원회’의 정책을 바탕으로 교회와 단체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종교 모두 수백억에 달하는 대북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인 조정과 조율을 거치면서 일관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불교계 일각에서는 ‘협력을 통한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초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단과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부터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남북불교통합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종단과 단체들이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종단협 차원에서 조별편과의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통일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남쪽 불교계의 역량결집은 중요하다”며 “단체들간의 교류를 통해 남북불교통합의 장기적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 종단·단체간 경쟁·사업 중복으로 효율 떨어져 범종단 네트워크 구성 상호 협조체계 구축해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 종단과 단체들은 ‘ 따로’ 대북사업을 진행해 왔다. 조계종은 2000년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창립해 구조물품과 사찰단정 안료 지원, 신계사 복원 불사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태종 또한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바탕으로 대북사업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진각종은 종단 차원에서 구조물품 지원과 불교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불협과 정토회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농업지원과 어린이 보육사업, 식량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종단들이 눈앞의 성과만을 의식한 나머지 각자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상호 경쟁과 중복 교류가 계속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종단과 단체들의 상호 신뢰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대북교류단체들의 역량이 성숙한 만큼 각자 사업을 지속하되 실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교계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 천태종 서울동부 포교거점 마련 망우동 삼릉사 종합불교회관 개관



천태종은 12월8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350평 규모의 서울동부 포교도량 삼릉사를 개원했다.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 포교도량인 망우동 삼릉사 종합불교회관이 완공돼 지역불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릉사(주지 용암)는 12월 8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350평 규모의 종합불교회관 봉불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종합불교회관은 대불보전(4층)을 비롯해 법화삼매당(3층), 소법당, 신행단체 사무실, 요사이상 2층), 사무실, 대중식당(이상 1층), 주차장, 창고, 기계실(이상 지하1층)을 갖추고 지역불자와 시민들을 맞는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증명으로 봉불·점안에 이어 제막식, 테이프 커팅, 낙성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 포교거점이 될 삼릉사 종합불교회관 불사에 진

력해 온 삼릉사 사부대중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치하하고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들이 삼릉사를 천태의 법광을 밝히는 도량으로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삼릉사 주지 용암 스님(천태종 교육부장)은 “종합불교회관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이면서 불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며 “천태일승도법을 널리 펴는 도량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감사원장 정산 스님, 중앙종의회 의장 덕산 스님, 중앙구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태우 스님, 문병권 중앙구청장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 불교·밀교분야 논문 6편 발표

### 진각종 교육원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12월 3일 진각종 종인원 강당에서 제6회 진각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논문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논문 작성자로 선정된 6명의 학자들은 불교와 밀교 분야의 연구논문 6편을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성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대승불교 유가행과의 수행이 밀교의 수행으로 전개된 과정을 인도와 티베트의 저작에 기초해 살펴본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신영 고려대 강사는 조선 후기 가람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방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까지 대방건축은 대체로 열불당

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모든 대방건축을 열불당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근대 중국의 불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 불교학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근대 중국의 불교부흥과 인문지식(김영진), 설일체유부의 육인사연과과설에 대한 나가르주나의 비판 연구(배경아), 보리도차제론에 나타난 초기유가행과의 지관연구(차상엽), 업보설과 회향사상의 비교연구(문은식)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분야의 발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각종과 유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회당학회 정기총회

진각종 회당학회는 12월 3일 진각종 종인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회당학회는 내년 9월 ‘진호국가의 의의와 한국의 진호국가불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종조 회당 대종사의 유적지 탐방을 통해 회당사상을 조명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활성화 및 메일링 서비스 체계 구축, 한·중학술대회 개최, 한·일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발행, 소식지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당학회 학회장에 혜정 정사(진각종 교육원장)를 재선출 했으며, 감사에 상제 정사(홍원심인당 주교)를 선임했다. 또 새 임원으로 배운정 씨(신덕심인당 신교도)를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 미륵종 조직체계 정비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총무원 정제와 조직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연봉)는 12월 8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제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중앙총무원장 및 지역교구 총무원, 중앙전문기관 설치 등을 담안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륵종은 중앙에 총무원, 중앙종회, 감사원을 두고, 기존의 5개 지역교구를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청 경북 경남중부 경남서부 광주 전남북 등 10개로 확대해 180여 명사를 관리해 나간다. 또 포교원과 호법원, 감찰원, 중앙선원 등 4개의 전문직무기관을 설치해 종단의 전문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창종기념법

회, 보살계 수계법회, 해외 성지순례, 종도연수교육, 행사교육 등을 담은 200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2004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봉영 기자

### 본원종 내년사업 확정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종단내 실을 다지는 내용의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는 신년하례법회, 4대 명절 기념법회, 남북평화통일 기원방생·수륙 천도법회, 종도연수교육, 삼동안거 결제 등이 포함됐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내년에는 종정 무구 스님을 정점으로 종단발전과 중흥을 위해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승가중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승가중 종정 월인 스님(앞줄 가운데)과 수계한 스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대한불교승가중(종정 월인)은 11월 22~23일 부산 명륜동 서래암 중앙 금강계단에서 제1회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종정협의회 소속 23개 종단의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장을 인례와 유나로 정한 가운데 승가중 창종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수계산림에

서는 20여명의 사미(니)에게 비구(니)계가 내려졌다. 2급,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에 대한 법계품수식도 함께 열렸다.

승가중 종정 월인 스님은 “계를 제 몸과 같이 여기고 모든 수행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